

# 전남도 철도·도로에 2조4천억 푼다

전남도의 내년도 국비 예산 중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보다 6천379억원(36%) 증액된 2조3천922억원이 확보, 철도·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는 전국 SOC 예산증가율 26.7%를 10%포인트 웃도는 것으로 여수엑스포 기반 시설 확충, 국도 77호선 조기건설, 서남해안 연륙·연도교 사업 등이 대폭 반영됐다.

전남도는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적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지금까지 SOC 예산 중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 확보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문별로 고속도로사업에는 여수엑스포 성공개최 지원을 위한 목포~광양간, 전

SOC 예산 36%↑ 경제위기 극복 기대

생산 유발 5조7천억·5만명 고용 효과

주~광양간 구간 6천378억원과 광주~완도간 실시설계 21억원이 반영됐고 국도사업에는 군외~남창간 등 15개 지구 5천598억원, 현경~해제 등 신규사업 13개 지구 251억원이 반영됐다. 연륙·연도교 사업으로 여수~고흥간 연륙교인 적금~영남 등 5개 지구 794억원, 신안 압해~압태간 새천년대로, 여수~고흥(화양~적금)간 등 신규 사업 2개 지구 350억원이 포함됐다. 철도사업에는 호남고속철도 착공예산과

여수엑스포 전라선 복선전철화 등 7천727억원이 배정돼 고속철도망과 지역간 연계철도망이 조기에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으로 773억원, 국가산단 진입도로 등에 2천300억원이 반영됐으며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잔여사업비 7천931억원이 내년부터 정부재정 운영비로 전환돼 사업 계획기간 내에 예산확보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확보된 국고예산 중 신규 착공지역

은 16개 지구로 올해 6개 지구에 비해 크게 늘어났으며, 앞으로 여기에 투자될 총 사업비만도 3조원에 달해 지역 SOC 기반 시설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착공지역 중 국도(13개 지구)는 화양~적금(150억원), 압해~압태(200억원), 현경~해제(70억원), 돌산~우두(10억원), 옥과~적성(15억원), 진상~하동(15억원), 포산~서망(26억원), 벌교~주암3(10억원), 영광~해제(5억원) 등이 포함됐다.

전남도는 국고예산이 집행되면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로 생산유발 5조7천억원, 지역내총생산(GRDP) 상승, 고용 유발 5만명, 소득 유발 5천억원, 부가가치 유발 2조원 등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 세미나 예산 타 놓고 한번도 안열어

광주시의회 '졸속 예산 편성 실태' 공개

광주시의회가 16일 주먹구구식 편성 등으로 매년 반복 지적받으면서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광주시의 '졸속 예산 편성 실태'를 공개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2008 제 2회 광주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 100여건에 이르는 방만한 예산 운용 사례를 공개했다.

광주시는 올해 '도시마케팅 관련 세미나 및 공청회 개최'를 위해 1천만원을 편성했다가 이번 추경안에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며 잔액을 삭감한 예산안을 올렸고 "글로벌 도시마케팅 업무 협의 및 마케팅 선진도시 견학"을 위해 편성한 1천500만원도 한 푼 쓰지않고 반납했다. 이 때문에 일단 따놓고 보자는 안이한 생각에서 예산을 책정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뒤 전혀 쓰지 않고 다음해로 이월한 사업만 30건, 예산 규모만 283억9천200만원에 달해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시는 이와 청소년 수련원 개·보수 시설비와 실시설계비 1억8천900여만원 가운데 10%인 1천890여만원을 절감했다는 예산안을 추경안에 내놓았다. 그러나 지난 6월 1차 추경안 심의 때 광주시측이 "전체 보수를 하려면 6억6천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너무 많아 시급한 부분부터 해결하기 위해 먼저 1억9천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시의회에 밝힌 점을 감안하면 허술한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조호권(민주·북구 4) 의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해놓고 뒤늦게 2차 추경안에 감액한 사례가 특히 많았다"면서 "광주시의 재정 운용을 다음해로 넘기는 예산안을 제출했다. 광주시가 이처럼 예산을 편성

한 뒤 전혀 쓰지 않고 다음해로 이월한 사업만 30건, 예산 규모만 283억9천200만원에 달해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 도내 투자기업에

### 행정 수수료 감면

전남도는 16일 도내 투자유치를 위해 건축·허가나 부동산 취득 등에 따른 각종 행정 수수료를 줄여주기로 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광주지방법무사회, 대한측량협회, 한국감정평가협회 등과 함께 협약을 맺고 이를 단체가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를 가볍게 해주기로 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 취득 알선, 토지이용과 컨설팅 등에 대한 수수료 40%를,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허가, 오프수 시설 등 설계와 컨설팅 등에 대한 수수료를 50% 낮추기로 했다.

광주지방법무사회는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근저당설정 등기 등에 대한 수수료를 30% 낮추기로 했으며 대한측량협회는 토지정밀변경 인·허가 및 공공측량 등에 대한 수수료 30%를 깎아주기로 했다.

한국감정평가협회도 토지, 건물 등에 대한 감정평가와 금융기관의 근저당 설정 등에 필요한 가격평가 수수료 10%를 낮춰주고 도내 투자유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전남도는 17일 여수 디오션 리조트에서 도내 부동산중개업소 대표자와 수도권 부동산선진협회 대표자, 투자유치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지박람회 개최를 위한 토지박람회 포럼이 열리며 투자유치 성공 사례와 최첨단 투자유치 지원시스템을 선보이고 전남지역 투자환경과 투자지원책 등을 소개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노벨상 수상 8주년 기념 강연회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가 16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8주년 기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강연회'에 내빈들의 박수를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전남 사업 예산 90% 조기 집행

내년 상반기 발주·지자체 발행 등 내수촉진 주력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 사업의 90%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발주하는 등 내수촉진에 주력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16일 조기 발주와 긴급입찰 시행, 지역제한 입찰 강화, 지역의무 공동도급 비율 상향 권장,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사·용역 1천만원, 물품 200만원 이상 규모의 발주 물량을 파악해 시 홈페이지와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할 방침이다. 시는 또 SOC사업 등 주요 투자사업과 연

계한 공사의 선형사업인 설계와 감리, 타당성 조사, 안전진단 등을 비롯해 올해 사업과 연계돼 중단없이 이행해야 하는 시설물 유지·관리와 공무원 단체보장보험 등도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채권 확보가 가능한 업체에 대해 착공과 동시에 선금을 최고 70%까지 지급하고 기성금까지 완료되면 30일 간격으로 기성대가를 지급해 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전남도는 내년 예산액 중 90%인 4조6천

억원을 상반기에 발주하고 이중 2조8천억원(60%)을 조기집행하는 한편 2천5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공공투자를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사업비 전부나 일부가 국·도비 보조금인 경우 예산 배정 이전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내년 상반기 발주 사업은 모두 입찰기간(평균 10일)을 5일로 줄이고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했다.

또 현재 1천만원 이하로 돼 있는 수의계약 대상도 내년 6월까지 상한선을 2천만원으로 확대하고, 내년 1회 추경을 최대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채희중기자 chae@

## ‘도청 별관’ 해법 찾을까

표문화조정위 내일 역대위원장·위원 간담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공사가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 논란으로 중단된 가운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한 해법찾기에 나서 주목된다.

광주의 각계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도청 별관 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도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과 도청모전을 위한 공동대위간 중재에 나서고 있어 해법 도출에 대한 기대를 부풀리고 있다.

아시아문화조정위원회(위원장 최협·이하 조성위)는 18일 오후 4시 광주 라마다호텔에서 광주전남지역 역대 조성위원장과 위원, 신임 위원 등 24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연다.

간담회에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성위원회의 발전적인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조성위의 광주 간담회는 지난 11일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3기 조성위원회 회의에 이어 열리는 것으로 광주

지역 역대 조성위원들이 대거 참석, 최근 문제가 된 옛 전남도청 별관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해법 도출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별관 해체를 주장하는 추진단과 원형 보존을 주장하는 공대위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은 데다 시민단체의 집합회도 큰 성과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별관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조성위의 활동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의 문화예술, 사회단체 등 관계 인사들로 구성된 전·현직 조성위원들이 별관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중재에 나서려 할 경우 대안이나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석회의도 16일 공대위와 추진단에 문화전당 해법을 찾기 위한 실무진 교섭을 갖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사태 해결에 나서고 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2009년 **중국어로 대학가기**

한국 중국 대학가기

외국인이자 중국어 학습자

www.littlechina.co.kr

---

### 중국 명문대학 입학반 모집

2009년 9월 중국대학 입학

- 2009 중국대학 입학반 모집대상
- 2009년 9월 입학
- 2009년 9월 입학
- 2009년 9월 입학
- 2009년 9월 입학
- 2009년 9월 입학

### 북경대 청화대 입시준비반

- 북경대학 입시준비반
- 청화대학 입시준비반

### 한국외국어대학 FLEX 준비반

- FLEX 1반
- FLEX 2반
- FLEX 3반
- FLEX 4반
- FLEX 5반

### 국내대학 중국어 수시 준비반

2009년 수시 중국어 수시 준비반